

아델만의 韓國所得分配 平等論 檢討

—世界銀行報告書에 反映된 그의 所論을 中心으로—

裴 茂 基*

| | |
|-------------------------|-----------------------|
| I. 序 言 | V. 韓國所得分配 平等要因에 대한 批判 |
| II. 資料上の 制約 및 誤謬 | VI. 結 語 |
| III. 分析方法上の 諸問題 | 附錄：韓國所得分配關係文獻 |
| IV. 高度成長·分配安定 結論에 대한 批判 | |

I. 序 言

所得의 階層別 分配(size distribution of income)에 대한 問題는 經濟學의 오래된 課題중의 하나이다. 韓國과 같이 比較的 短期間에 高度成長을 통하여 經濟規模가 急速히 增大된 나라에서는 一般的인 所得의 不平等度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특히 成長과 所得分配의 不平等度와의 사이에 어떠한 關係가 있는가에 대하여 중요한 疑問이 提起된다.

가장 廣範圍한 研究로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고 또한 受容되고 있는 S. 쿠즈네츠教授의 理論에 의하면 開發途上國은 대체로 所得의 不平等度가 높고 그것이 經濟成長과 함께 더욱 높아지다가 一定段階에 이르면 그것이 安定的으로 되며 高度의 產業國家로 進入하면 不平等度가 低下한다고 한다. ⁽¹⁾ 이것이 소위 쿠즈네츠假說이다.

그동안 韓國의 階層別 所得分配問題에 대하여는 國內外學者들에 의하여 다수의 研究結果가 發表된 바 있다. 지금까지의 研究結果에 의하면 韓國의 所得分配은 대체로 그 不平等程度가 낮으며, 他國과 비교해 보더라도 開發途上國에서 가장 낮은 集團에 속할 뿐만 아니라 一般的으로 낮은 편인 先進諸國에 못지 않게 낮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1) S. Kuznet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55; *Distribution of Income by Size*, a Special Issue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XI, No. 2, Part II, January 1963, pp. 1-80.

최근에 발표되어 世界의 耳目을 集中시키고 國內에서도 널리 알려진 바 있는 世界銀行과 英國의 서섹스大學 共同研究 報告書⁽²⁾는 그 發表時期과 內容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 이 報告書의 附錄에 실린 韓國에 관한 所得分配分析은 아델만教授가 執筆하였으며 그 結果는 報告書의 本文중에도 다수 引用되었다.

아델만教授의 研究結果에 의하면 韓國은 開發途上國集團에서 所得의 不平等度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時系列分析 結果 1964年에서 1970年間に 몇가지 構造的인 變動은 있었으나 全體的인 所得分配의 不平等度에는 變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델만教授의 論文은 草稿⁽³⁾보다는 약간 縮少된 형태로 世界銀行·서섹스大學 報告書에 收錄되었다. 그러나 그의 草稿에는 있으나 最終報告書에서 削除시킨 것은 그다지 重要하지 않은 本文中の 약간의 部分과 最終 結果表을 誘導하기까지의 過程을 나타내는 몇가지 統計表일 뿐 그 結論이나 數值에는 조금도 變化가 없다. 最終報告書의 結果表만으로서 어떻게 그와 같은 結論과 數值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最終報告書뿐 아니라 그의 草稿의 內容에 따라 그의 韓國所得分配의 不平等度의 計算過程을 檢討, 批判하고자 한다.

政府는 그동안 「先成長, 後分配」를 내세우고 分配政策은 뒤로 미룬다는 立場을 취해 왔다. 이제 15年間の 高度成長이 達成되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成長政策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 時點에서 政府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分配政策을 採擇할 것인가는 國民의 지대한 關心事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韓國의 長期經濟政策 樹立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쳐 온 世界銀行이 그의 所得分配에 관한 報告書에서 韓國 所得分配의 不平等度가 대단히 낮고 高度成長過程에서 그것이 安定的이었다고 내린 結論은, 만약 그 結論들이 確固한 事實에 基礎를 둔 것이 아니라면 자칫 政策當局者에게 그릇된 方向을 提示할 危險性마저 없지 않다. 이미 國內에서도 이 報告書의 結論을 土臺로하여 소위 쿠즈네츠假說이 韓國에서는 成立되지 않는다는 主張이 擡頭되기에 이르렀다.⁽⁴⁾

本 小稿에서는 아델만教授의 分析內容에 대하여 그가 사용한 資料上的 制約 및 誤謬, 分析方法上的 諸問題, 高度成長過程에서도 所得分配가 惡化되지 않고 安定的이었다는 그의 結論에 대한 批判, 그리고 韓國에는 所得分配가 平等化되게 되어온 歷史的 事件이나 事實등이 있다고 하여 提示하는 諸要因들과 그러한 立場에 대하여 간단한 批判을 가해 보고자

(2) Hollis Chenery, M.S. Ahluwalia, C.L.G. Bell, J.H. Duloy, and R. Jolly, *Redistribution with Growth: Policies to Improve Income Distribu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ntext of Economic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3) Irma Adelman, "Redistribution with Growth: The Case of Korea", mimeographed, December 1973.

(4) 徐相喆, 「經濟發展과 所得分配」, 『新東亞』, 1975年 5月號, pp. 66-73.

한다.

아델만女史도 韓國에는 所得分配를 分析할 수 있는 適切한 統計가 없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資料利用上의 制約이나 誤謬등을 지적은 하지만 그것은 사소한 것이며 결코 주된 批判의 目的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檢討와 批判은 III. 分析方法上의 諸問題로서 우리가 보기에 거의 誤謬라고 생각되는 方法을 女史가 採擇함으로써 無意味한 것에 가까운 結論을 導出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II. 資料上の 制約 및 誤謬

아델만教授가 사용한 資料는 農家所得에 대하여는 農水産部에서 每年 調査하는 農家經濟 調査結果報告이며, 勤勞所得者의 所得은 1967年 韓國銀行에서 調査한 賃金基本調査報告와 1970年 韓國産業開發研究所가 調査한 賃金實態基本調査報告이다. 그리고 非農業自營業主 및 財産所得者의 所得은 世界銀行의 모리슨씨가 計測한 것⁽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상 각각의 統計資料가 所得分配分析에 이용될 때에 가지게 되는 制約과 아델만教授가 실제 사용시에 범한 誤謬는 다음과 같다.

1. 農家經濟調査資料의 制約

農家經濟調査는 農水産部 農業統計官室에서 調査, 發表하고 있다. 現在의 統計資料와 時系列上 比較가 가능한 것은 1961年 7월에 改編되고 1962年 12월에 指定統計 第8號로 指定 公布된 以後인 1963년부터이다. 이후 1972년까지는 80個 調査地區에 1,182戶의 標本農家가 있었으나 1973년부터 標本農家は 全國 160個 調査地區에 2,517戶로 擴張되었다.

이 調査의 調査項目은 ① 標本農家の 概況, ② 標本農家の 收入 및 支出, ③ 勞動時間, ④ 標本農家の 財産등이다.

그리고 이 調査에서 除外되는 家口는 ① 1段步未滿을 耕作하는 農家, ② 試驗場, 學校, 宗教團體등 準農家, ③ 非耕種農家, ④ 農業勞動者, ⑤ 小作農家, ⑥ 林業, 水産業從事 家口 등이다.

農家經濟調査結果는 農村의 所得分配分析에 흔히 利用되고 있는데 그와 같이 利用하는데에는 여러가지 難點이 있다.

첫째, 調査項目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調査의 一次的인 目的은 所得分配構造의 파악에 있지 않다. 따라서 標本設計에서부터 最終集計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고려가 缺如되어

(5) C. Morrison, "IBRD Consultant Report on Korea", August 1973.

있어 全體的으로 이 資料를 所得分配分析에 사용하는 것을 곤란케 한다.

둘째, 標本農家의 戶數가 總農家戶數 약 240萬戶에 비하여 1972년까지는 약 0.05%로서 매우 적었고 1973年以後부터는 약 0.14%로 되어 그 전보다 배나 늘었으나 아직도 적어 代表值로서의 信賴度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셋째, 調查對象에서 除外된 農家가 많고 그것이 특히 低所得家口의 方向으로만 集中되어 있는 점이다. 그리고 都市家計調查와는 달리 上位所得階層의 家口는 전혀 除外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都市勤勞者家計所得의 統計에 對比할 때 上位方向으로 큰 偏倚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네째, 이 調查의 結果報告書에는 所得階層別 農家戶數의 統計가 없고 耕地規模別 戶當平均 農家所得의 統計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所得의 不平等度를 나타내는 지니係數(Gini coefficient)를 計算할 때에는 耕地規模別 農家戶數의 統計를 이용하여 各 耕地規模別로 戶當平均 農家所得에 農家戶數를 곱하고 그 結果值로부터 所得의 百分比를 구한다. 이 所得 百分比를 家計의 百分比와 對比시켜 지니係數를 구할 수 있다. 애당초 所得階層別 農家戶數의 統計가 없기 때문에 이 資料로서 所得分配狀態를 分析하려면 그와 같은 過程이 不可避하다. 그러나 所得의 百分比를 計算하는 過程에서는 같은 耕地規模階級에 드는 農家間에 存在하는 所得隔差는 마지 없는 것처럼 處理되어 所得分配의 平等化의 方向으로 偏倚를 가질 可能性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綜合하건대 農家經濟調查結果도 農村 또는 農家의 所得分配를 分析하는데 使用되기에는 그 適合性이 낮은 資料이며 上方偏倚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2. 勤勞所得者 所得資料上的 制約 및 誤謬

勤勞所得者에 대한 所得資料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67年의 韓國銀行의 賃金基本調查報告와 1970年 韓國產業開發研究所의 賃金實態基本調查報告이다. 이들 資料는 緻密한 計劃下에 調查된 龐大한 規模의 것으로 賃金統計資料로서는 훌륭하나 특히 農家經濟調查結果와 比較되면서 所得分配分析에 이들이 그대로 利用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制約이 있다.

첫째, 이들 資料는 標本設計에 있어서 먼저 事業體가 選定되고 이들 事業體중의 從業員이 다시 選定된 從業員調查로서 家計調查가 아니다. 물론 階層別 所得分配의 分析은 家計單位로 하지 않고 個人單位로도 可能하나 本 小稿가 대상으로 삼는 아델만의 分析에서는 모든 單位가 家計 또는 家口이므로 이러한 從業員의 賃金所得統計를 家計의 所得으로 取扱하는 데에는 그 만큼의 制約이 있다는 것이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韓國銀行의 調查에서는 全產業이 鑛業, 製造業 및 電氣業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대

하여 韓國産業開發研究所의 調査에서는 鑛業, 製造業 그리고 서비스業으로 되어 있어 後者の 경우 調査業體의 3分の 1을 차지하는 서비스業중 電氣業은 10%에 不過하고 建設, 都小賣, 運輸, 金融, 기타 서비스등의 業種이 包含되어 兩調査는 엄밀하게 같은 對象을 調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세째, 물론 資料의 不足에 基因하는 것으로 充分히 理解는 되나 1964—70年間을 比較하면서 1967—70年間の 資料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誘導되는 結論의 重要性에서 보아 증대한 制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네째, 아델만教授는 賃金階層別 從業員의 構成比 資料를 이용함에 있어서 몇가지 誤謬를 범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表 1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韓國銀行의 1967年 報告書 本文중에는 明白히 나타나 있는 資料를 報告書 앞부분에 있는 概略의인 英文要約에 있는 資料밖에 없는 줄로 誤認하여 아델만教授 自身이 計算을 한 것을 使用하고 있다. 그 것은 表에서 볼 수 있듯이 各賃金階層에 걸쳐 상당한 差異가 있으며 그의 計算値가 우연하

表 1. 鑛工業 賃金階層別 從業員 構成比(1967)

단위 : 원, %

| 賃金階層 | 아델만의 計算 ⁽¹⁾ | 原 資 料 ⁽²⁾ | 賃 金 階 層 | 아델만의 計算 ⁽¹⁾ | 原 資 料 ⁽²⁾ |
|----------|------------------------|---|----------|------------------------|----------------------|
| 4,000미만 | 17.2 | (3,000미만) 12.1 (4,000미만) 22.9 ⁽³⁾ | 18,000미만 | 3.4 | 2.5 |
| 6,000 " | 19.6 | | 20,000 " | 2.5 | 1.8 |
| 8,000 " | 15.8 | (3千~6千) 34.4 (4千~6千) 23.7 ⁽³⁾ | 25,000 " | 4.2 | 2.8 |
| 10,000 " | 11.5 | | 30,000 " | 1.5 | 1.2 |
| 12,000 " | 8.8 | 15.9 | 40,000 " | 1.4 | 1.2 |
| 14,000 " | 7.7 | 10.3 | 50,000 " | .4 | .4 |
| 16,000 " | 5.7 | 7.1 | 70,000 " | .2 | .2 |
| | | 5.5 | 70,000이상 | .06 | .1 |
| | | 4.4 | 計 | 100.0 | 100.0 |

註 : (1) 아델만教授가 韓國銀行의 『賃金基本調査報告』(1967), 1968. p. 43에서 計算한 것,

Adelman, "Redistribution with Growth; The Case of Korea", Table 4.

(2) 韓國銀行, 『賃金基本調査報告』(1967), 1968, p. 374에서 構成比만 作成

(3) 韓國銀行, 前掲書 p. 43(혹은 國文으로는 p. 30)에서 計算한것.

게도 상당히 所得分配의 平等化方向으로 偏倚되어 있다. 즉 그의 計算値에 의하면 月所得 6,000원 未滿의 從業員은 36.8%이나 原資料 또는 아델만教授가 쓴 資料로서 다시 計算한 그 構成比(表 1의 註(3)해당)는 각각 46.5% 또는 46.6%로서 原資料의 低賃金 從業員 構成比가 훨씬 높다. 그 때문에 아델만教授의 計算値중 中間所得層의 構成比가 原資料의 그 것보다 조금씩 높다.⁽⁶⁾

(6) 30,000원 이상의 賃金階層에서는 兩構成比의 數値가 거의 같다.

이 밖에도 女史는 비교적 無誠意하게 資料를 取扱하고 있다. 즉 1970年 鑛工業과 서비스業의 賃金階層別 從業員構成比에서 原資料에는 明白히 3,000원미만階層이라고 되어 있는 數值들을 1967年度의 4,000원미만과 맞추기 위하여 그냥 4,000원미만으로 處理하고 있다. 이것은 6,000원미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사용한 月當所得 4,000~6,000원에 속하는 從業員 構成比는 실제로는 3,000~6,000원 階層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⁷⁾ 그 밖에 비교적 사소한 것이지만 1970年の 全産業 賃金階層別 從業員 構成比에 있어서 原資料 보다 약간씩 틀린 곳이 세군데가 발견된다.⁽⁸⁾

3. 非農業自營業主 및 財産所得者 所得資料上の 問題

非農業自營業主 및 財産所得者의 所得에 대하여는 아델만教授는 전적으로 世界銀行의 모디슨씨가 간단히 推計해 놓은 各集團의 所得分配에 관한 曲線을 利用하고 있다. 모디슨씨의 未發表資料에 의한 推計方法은 아직 資料를 入手치 못하여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그가 韓國외에도 케냐, 필리핀, 탄자니아, 튀니지아등등 10餘個國의 所得分配를 推計한 바 있고 또한 韓國에 관해서도 既存統計에서 推計한 것이 明白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世界銀行 內部用的 간단한 試算이 아닌가 추측된다. 아델만教授가 引用한 그 資料에 의하면 非農業自營業主의 所得分配는 賃金所得者나 農家の 그것에 비하여 약간 더 不平等하게 되어 있고 財産所得者의 그것은 훨씬 더 不平等하게 分配되어 있다.

아델만은 1964年과 1970年の 所得分配를 比較하여 同期間중의 高度成長期에 所得分配가 惡化되었는지의 興否를 分析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所得集團 즉 非農業自營業主와 財産所得者에 대해서는 兩年度에 각각 完全히 같은 所得分布 즉 각 10分位에 대한 같은 數值的 構成比를 쓰고 있는 점은 커다란 分析上的 制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II. 分析方法上的 諸問題

아델만教授는 韓國의 所得不平等度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의 다른 學者에 의한 것과는 다른 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즉 과거에 韓國의 所得分配問題를 다룬 學者들은 國稅統計를 使用하거나, 經濟企劃院의 都市勤勞者所得統計(都市家計調查⁽⁹⁾에 의함), 農水産部の 農

(7) I. Adelman, *op. cit.*, Table 4와 韓國産業開發研究所, 『賃金實態基本調査報告』I, p. 122와 II, p. 222, p. 249를 參照할 것

(8) 7.71이 8.01로, 12.59가 12.29로, 10.19가 9.99로 되어 있음. I. Adelman, *ibid.* Table 4 및 韓國産業開發研究所, 前掲書, II, p. 220 參照.

(9)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도시가계연보』, 1963이후 각 年度別 보고서.

家經濟調査 혹은 中央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調査⁽¹⁰⁾ 등을 利用하였다. 그런데 아델만女史는 조금 더 새롭게 이를 試圖하여 韓國의 全家口가 ① 賃金 및 俸給所得者家口, ② 農家, ③ 非農業自營業主家口, ④ 財産所得者家口の 4개의 集團으로 構成된 것으로 假定하였다. 그리고 賃金 및 俸給所得者家口の 所得分配는 前記 1967年 韓國銀行의 賃金基本調査報告와 1970年 韓國産業開發研究所의 賃金實態基本調査報告의 資料를 使用하였다. 또한 農家의 所得分配는 農水産部의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의 資料를 利用하였다. 끝으로 非農業自營業主家口와 財産所得者家口の 所得分配資料는 前記의 世界銀行 모리슨씨의 推計値를 그대로 使用하였다.

아델만女史의 韓國所得分配研究의 결정적인 弱點은 그의 分析方法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의 分析方法은 다음과 같다.

그는 위에 든 4개의 各所得集團에 대하여 家口の 10分位別로 그 集團 全體所得의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가를 計算하는 作業을 하였다. 이 計算作業에 있어서 農家所得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過程에 따랐다. 즉 앞서 資料上의 制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原資料는 ① 0.5町步미만, ② 0.5~1.0町步, ③ 1.0~1.5町步, ④ 1.5~2.0町步, ⑤ 2町步以上の 다섯 耕地規模階層밖에 없으므로 여기서 얻는 所得分配曲線上의 점도 5개 뿐이다. 이 5점을 사용하여 10分位別 所得의 퍼센트를 計算하였다. 賃金 및 俸給所得者家口の 所得分配는 原資料에 所得階層이 있으므로 各階層內의 所得金額을 計算할 적에는 階層의 中央值(級中央)로서 計算하였다. 이러한 過程을 통하여 各集團의 家口를 낮은 所得으로부터 10%, 다음의 10%등의 順序로 區分하고 그 각각의 10分位마다 몇 퍼센트의 所得이 配分되는가를 計測해 내었다. 1964年度에 있어서 各所得集團에 대하여 그와 같은 計算作業이 끝나면 이들 10分位別 所得 퍼센트를 같은 10分位에 따라 加重平均⁽¹¹⁾하여 1964年의 소위 全體家口の 所得分布로 삼으며 그 結果는 表 2와 같다. 다음에 그로부터 不平等度係數인 지니係數를 計算하였다.

같은 方法을 써서 1970年度에 대하여도 소위 全體家口の 所得分布를 計算하고 이어서 지

(10) 中央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우리나라의 所得分布와 消費構造에 관한 實態分析』, 1966年 12月. 이 資料는 오시마教授가 6個國의 所得分配에 관한 國際比較를 할 때 利用되었으며 오시마의 韓國에 관한 資料가 다시 포커트에 의하여 國際比較研究에 引用되고 있다. 오시마 및 포커트의 論文에 관해서는 本稿의 附錄을 參照할 것.

(11) 아델만教授는 그의 草稿에 附錄으로 收錄된 7個의 表중 마지막 2個의 表(現論文에서 表 2로 統合해둔것)에서 全所得者를 어떻게 計算했는지에 대한 說明이 없다. 表 2에 1964年 및 1970年 全所得者의 概括안에 있는 分布는 經濟企劃院의 經濟活動人口調査結果值(1970年度)중 從事上의 地位別 就業者數에 의거하여 各所得集團에 대하여 賃金 및 俸給者 50%, 農家 30%, 非農業自營業主 15%, 財産所得者 5%의 加重値를 사용하여 加重平均해 본 計算結果이다.

니係數를 計算하였다.

아델만教授의 위와같은 방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係數는 1964년의 0.37과 1970년의 0.36이다. 그리하여 그는 韓國의 所得分配의 不平等度가 開發途上國의 所得分配의 보통의 높이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밝힌뒤 1964년과 1970년의 兩年度에 그것이 거의 變動하지 않았기 때문에 韓國은 高度成長을 하고서도 所得分配은 惡化되지 않고 不變狀態로 남아 있다고 結論지었다. 世界銀行 서섹스大學 共同報告書에서 引用한 表 3에서 보더라도 그 事情을 짐작할 수 있다. 韓國은 1970年 現在 所得水準으로는 同表의 最下位集團인 1人當 國民所得

表 2. 아델만의 各所得集團別 韓國所得分配 1964 및 1967

단위 : % 포인트

| 家口의 10分位 | 賃金 및 俸給者 | | 農 家 | | 非農業自營業主 | | 財産所得者 | | 全 所 得 者 | |
|-------------|----------|------|------|------|---------|------|-------|------|---------------------|---------------------|
| | 1967 | 1970 | 1964 | 1970 | 1964 | 1970 | 1964 | 1970 | 1964 | 1970 |
| 1 | 2 | 2 | 4 | 5 | 4 | 4 | 1 | 1 | 3(3) ⁽¹⁾ | 3(3) ⁽¹⁾ |
| 2 | 4 | 3.5 | 5 | 5.5 | 4.5 | 4.5 | 2 | 2 | 4(4) | 4(4) |
| 3 | 4.5 | 4.5 | 6 | 6 | 5 | 5 | 3 | 3 | 5(5) | 5(5) |
| 4 | 5.5 | 6 | 7 | 7 | 5.5 | 5.5 | 4 | 4 | 6(6) | 6(6) |
| 5 | 7 | 7 | 8 | 8 | 6 | 6 | 5 | 5 | 7(7) | 7(7) |
| 6 | 9 | 9 | 9 | 10 | 7 | 7 | 7 | 7 | 8(8.6) | 8(8.9) |
| 7 | 10 | 11 | 10 | 11 | 8 | 8 | 8 | 8 | 9(9.6) | 11(10.4) |
| 8 | 13 | 13 | 12 | 12.5 | 12 | 12 | 10 | 10 | 12(12) | 12(12) |
| 9 | 17 | 16 | 16 | 15 | 14 | 14 | 15 | 15 | 16(16) | 15(15) |
| 10 | 28 | 28 | 22 | 20 | 34 | 34 | 45 | 45 | 28(28) | 29(27.4) |

註 : (1) 經濟活動人口調査結果의 1970年度 從事上地位別 就業者數에 의거 各所得集團에 대하여 賃金 및 俸給者 50%, 農家 30%, 非農業自營業主 15%, 財産所得者 5%의 加重值로서 加重平均한 計算結果임.

資料 : I. Adelman, "Redistribution with Growth: The Case of Korea", Tables 6, 7. 1970年の 分布는 Chenery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p. 283(附錄)의 Table 4로도 收錄됨.

(GNP) 美貨 300달러미만國家群에 들지만 所得分配의 不平等度에 따라 高位, 中位 그리고 下位不平等 國家群으로 三分한 것에 따르면 韓國은 下位不平等國에 屬한다. 그것은 各國家의 低所得家口 40%(lowest 40%), 中所得家口 40%(middle 40%) 그리고 高所得家口 20%(top 20%)로 나눈 區分에 따르더라도 韓國의 18.0, 37.0, 45.0⁽¹²⁾의 分布는 확실히 대부

(12) 이들 數値는 아델만教授의 結果인 18.0, 38.0, 44.0과 恰似하다. 즉 低所得 40%의 18.0은 完전히 一致하고 中所得 40% 및 高所得 20%에서 1%포인트가 分配이 달라져 있다. 最終報告書에서 아델만教授는 韓國의 所得分配가 1964년에 開發途上國들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고 1970년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면서 附錄에 收錄한 表(Annex Table 4, 本論文의 表 2)와 最終報告書 本文內의 表(Table I.1, 本論文의 表 3)를 比較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과 附錄에 收錄된 그의 論文의 註 64에서 자신이 1964년과 1970年の 全體所得分配를 誘導한 方法이 모리슨의 世界銀行論文에 잘 說明되어 있다고 한 점등을 미루어 보건데 表 3의 資料가 모리슨氏의 結果인 것처럼 本文에는 되어 있으나 아델만과 모리슨兩氏는 사실상 共同作業을 한 것 같고 따라서 두 結果値는 些少한 差異에도 불구하고 실은 하나의 計測인 것으로 보인다.

表 3. 所得水準 및 平等度別 國家分類

| 高位不平等國 (低所得家口 40%의 分配分이 12%未滿) | | | 中位不平等國 (低所得家口 40%의 分配分이 12~17%) | | | 下位不平等國 (低所得家口 40%의 分配分이 17%以上) | | | |
|-----------------------------------|--------|---------|------------------------------------|---------|---------|-----------------------------------|---------|---------|---------|
| 國別(年度) | 人當國民所得 | 低所得 40% | 中所得 40% | 高所得 20% | 國別(年度) | 人當國民所得 | 低所得 40% | 中所得 40% | 高所得 20% |
| 나(1969) | 136 | 10.0 | 22.0 | 68.0 | 어(1958) | 82 | 16.5 | 38.7 | 44.8 |
| 에(1968) | 159 | 9.6 | 22.4 | 68.0 | 메(1959) | 87 | 15.5 | 34.5 | 50.0 |
| 리(1971) | 200 | 6.8 | 25.2 | 68.0 | 이(1967) | 89 | 13.0 | 26.0 | 61.0 |
| 리(1971) | 239 | 11.6 | 34.6 | 53.8 | 아(1964) | 99 | 16.0 | 32.0 | 52.0 |
| 네(1960) | 245 | 10.0 | 26.0 | 64.0 | 스(1960) | 120 | 13.5 | 25.5 | 61.0 |
| 아(1968) | 247 | 10.8 | 32.1 | 57.1 | 가(1959) | 230 | 14.5 | 28.5 | 57.0 |
| 보(1968) | 252 | 8.2 | 22.8 | 69.0 | 비(1959) | | | | |
| 지(1970) | 255 | 11.4 | 33.6 | 55.0 | 아(1959) | | | | |
| 아(1968) | 265 | 6.5 | 28.5 | 65.0 | | | | | |
| 라(1968) | 277 | 6.5 | 20.0 | 73.5 | | | | | |
| 도(1970) | 282 | 9.3 | 29.9 | 60.8 | | | | | |
| 키(1968) | 282 | 9.3 | 29.9 | 60.8 | | | | | |
| 파(1969) | 295 | 11.2 | 36.4 | 52.4 | | | | | |
| 나(1970) | 330 | 11.6 | 32.4 | 56.0 | | | | | |
| 아(1970) | 358 | 9.0 | 30.0 | 61.0 | | | | | |
| 질(1970) | 390 | 10.0 | 28.4 | 61.6 | | | | | |
| 부(1971) | 480 | 6.5 | 33.5 | 60.0 | | | | | |
| 부(1968) | 497 | 8.8 | 23.7 | 67.5 | | | | | |
| 카(1958) | 510 | 8.2 | 30.3 | 61.5 | | | | | |
| 카(1971) | 521 | 11.5 | 30.0 | 58.5 | | | | | |
| 크(1969) | 645 | 10.5 | 25.5 | 64.0 | | | | | |
| 시(1965) | 669 | 6.2 | 35.8 | 58.0 | | | | | |
| 아(1969) | 692 | 9.4 | 31.2 | 59.4 | | | | | |
| 나(1970) | 1004 | 7.9 | 27.1 | 65.0 | | | | | |
| 라(1962) | 1599 | 11.1 | 39.6 | 49.3 | | | | | |
| 스(1962) | 1913 | 9.5 | 36.8 | 53.7 | | | | | |
| 나(1964) | 850 | 23.4 | 40.6 | 36.0 | | | | | |
| 본(1963) | 950 | 20.7 | 39.3 | 40.0 | | | | | |
| 국(1968) | 2015 | 18.8 | 42.2 | 39.0 | | | | | |
| 리(1969) | 1140 | 24.0 | 42.5 | 33.5 | | | | | |
| 가(1964) | 1150 | 27.6 | 41.4 | 31.0 | | | | | |
| 주(1968) | 2509 | 20.0 | 41.2 | 38.8 | | | | | |
| 야(1965) | 2920 | 20.0 | 39.8 | 40.2 | | | | | |
| 다(1970) | 4850 | 19.7 | 41.5 | 38.8 | | | | | |
| 차(1958) | 78 | 18.0 | 39.0 | 43.0 | | | | | |
| 라(1969) | 95 | 17.0 | 37.0 | 46.0 | | | | | |
| 카(1960) | 97 | 18.0 | 40.0 | 42.0 | | | | | |
| 스(1964) | 100 | 17.5 | 37.5 | 45.0 | | | | | |
| 간(1970) | 126 | 17.1 | 35.8 | 47.1 | | | | | |
| 국(1970) | 180 | 17.0 | 37.5 | 45.5 | | | | | |
| 국(1970) | 235 | 18.0 | 37.0 | 45.0 | | | | | |
| 란(1964) | 241 | 20.4 | 39.5 | 40.1 | | | | | |
| 수(1962) | 394 | 21.7 | 35.7 | 42.6 | | | | | |
| 리(1957) | 500 | 21.0 | 29.5 | 49.5 | | | | | |
| 아(1968) | 529 | 18.5 | 40.0 | 41.5 | | | | | |
| 아(1962) | 530 | 26.8 | 40.0 | 33.2 | | | | | |
| 인(1965) | 750 | 17.6 | 36.7 | 45.7 | | | | | |
| 아(1969) | 1079 | 16.5 | 36.1 | 47.4 | | | | | |
| 나(1970) | 1100 | 13.7 | 35.7 | 50.6 | | | | | |
| 로(1967) | 1990 | 13.6 | 37.9 | 48.5 | | | | | |
| 이(1968) | 2010 | 16.6 | 42.9 | 40.5 | | | | | |
| 동(1964) | 2144 | 15.4 | 31.7 | 52.9 | | | | | |
| 크(1968) | 2563 | 13.6 | 38.8 | 47.6 | | | | | |
| 트(1969) | 2859 | 15.5 | 42.5 | 42.0 | | | | | |
| 렌(1963) | 2949 | 14.0 | 42.0 | 44.0 | | | | | |
| 나(1970) | 1079 | 16.5 | 36.1 | 47.4 | | | | | |
| 로(1963) | 1100 | 13.7 | 35.7 | 50.6 | | | | | |
| 코(1967) | 1990 | 13.6 | 37.9 | 48.5 | | | | | |
| 이(1968) | 2010 | 16.6 | 42.9 | 40.5 | | | | | |
| 동(1964) | 2144 | 15.4 | 31.7 | 52.9 | | | | | |
| 크(1968) | 2563 | 13.6 | 38.8 | 47.6 | | | | | |
| 트(1969) | 2859 | 15.5 | 42.5 | 42.0 | | | | | |
| 렌(1963) | 2949 | 14.0 | 42.0 | 44.0 | | | | | |
| 나(1970) | 1079 | 16.5 | 36.1 | 47.4 | | | | | |
| 로(1963) | 1100 | 13.7 | 35.7 | 50.6 | | | | | |
| 코(1967) | 1990 | 13.6 | 37.9 | 48.5 | | | | | |
| 이(1968) | 2010 | 16.6 | 42.9 | 40.5 | | | | | |
| 동(1964) | 2144 | 15.4 | 31.7 | 52.9 | | | | | |
| 크(1968) | 2563 | 13.6 | 38.8 | 47.6 | | | | | |
| 트(1969) | 2859 | 15.5 | 42.5 | 42.0 | | | | | |
| 렌(1963) | 2949 | 14.0 | 42.0 | 44.0 | | | | | |

註: 人當所得은 美弗로 표시된 1人當國民所得.

資料: H. Chenery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pp. 8~9.

본開發途上國들인國民所得 300弗미만國家들중에서는 물론이고 300~750弗水準의國家들과 750弗이상의國家들에 있어서도高位不平等國, 中位不平等國들의所得分配보다不平等度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韓國의所得分配가 위의世界銀行·서섹스大學共同研究報告書에 나타난것처럼不平等度가 낮은가? 이 물음에 대하여 아델만은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나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직도 진정한分配構造를 말해 줄資料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델만의結論이 얼마만큼의妥當性を 가지느냐의 문제는 첫째 그가 사용한資料의妥當성과 둘째分析方法의妥當性の 문제로 된다. 앞서資料의妥當性の檢討에 이어 그의分析方法을 문제로 삼는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의分析方法에서 가장 문제로 되는것은全體所得者の10分位別所得分布를計算하는方法이다. 아델만教授는 앞서言及한바와같이各所得集團에 대하여年度別(1964年과 1970年), 家口의10分位別所得의百分比資料를 이용하여各集團에一定한加重値를賦與하여加重平均함으로써全所得家口의所得百分比를 구하였다.⁽¹³⁾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全體所得者の所得百分比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어떠한現實社會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어려운方法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어떠한加重値를 사용하든간에加重 또는算術平均할 수 없는 것끼리平均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자면賃金 및俸給所得家口의第1 10分位の所得과財産所得者家口의第1 10分位の所得 사이에 아무런關聯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財産所得者家口의第1 10分位에 드는家口所得은賃金 및俸給所得者家口의第10 10分位와所得階級 또는平均所得에서類似하거나 혹은兩所得集團의所得이全體所得者の所得分布에서上端과下端에位置하여 같은水準의所得에서 서로 겹치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령 1964年韓國銀行의賃金基本調查報告에서鑛業, 製造業 그리고電氣業이라는3産業의個別所得階層別從業員分布에서全體의所得階層別從業員分布를計算할 때에는同一所得階層이라는共通된基準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水平的으로結合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表 2에列擧된4개의所得集團들은 서로 전혀 무관하여 즉 동일한所得階層別家口數 등의基礎資料上的統一없이作成되어家口10分位別所得分布는 오로지同一所得集團內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지 어떤所得集團의 어떤10分位(예컨대第3 10分位)가 다른集團의 같은行(第3)의10分位와 아무런關聯이 없다는 것이다.

(13) 이 때 사용된 정확한加重値는未詳이나 그의原論文 第2表에從事上の地位別 就業者統計를收錄하고 있는점과 1970年度の 동일資料의加重値를使用한計算結果(表 2의註(1)參照)가 그의 것과恰似한 것으로 보아 동일 또는類似한加重値를 쓴 것만은 틀림없다.

이와 같은 관계는 說明을 위하여 假想的으로 作成해 본 그림 1에 의하여 살펴 보면 더욱 明白해지리라고 생각된다. 그림 1에는 各所得集團이 社會全構成員(家口單位 또는 個人)의 全體的인 所得分布로 볼 때 어떤 集團은 下位에 주로 位置하고 있고 다른 어떤 集團은 中位 또는 上位에 주로 位置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에 의하면 A에서 B까지 이르는 所得水準으로 볼 때 賃金 및 俸給者의 第8 10分位와 農家の 第5, 非農業自營業主의 第1 10分位가 類似한 所得水準에 있다. 表 2에서는 예컨대 賃金 및 俸給者의 第10 10分位와 財產所得의 第10 10分位가 비슷한 所得水準에 있는 것처럼 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의 平均所得이 20만원과 2,000만원일 수도 있다. 同表에서 또한 第10 10分位를 볼 때 처음 2集團의 높은 加重値로 말미암아 全所得者에서의 度數가 28(1964年)과 29(1970年)로 나와 있으나 처음 2集團의 第10 10分位の 平均所得이 가령 數十萬원이고 뒤의 2集團의 그것이 가령 數千萬원이라고 할 때 全所得者의 度數로 나온 28이나 29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은 그림이 어느정도 現實을 反映하는 것이라면 所得階層別統計로서 標準化되지 않은 다른 所得集團間의 각각의 10分位別의 水平的 統合(平均)이 얼마나 無意味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財產所得家口중에도 매우 낮은 所得의 家口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의 反問이 提起될 수 있다.

그러나 財產所得者家口중에 A水準보다 약간 높은 水準의 家口가 그 可能性의 면에서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 度數에 있어 매우 낮으며 따라서 財產所得者家口의 第1 10分位는 그림에서 처럼 A에서 上位方向의 넓은 所得階層으로 分布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 所得階層別 家口數로 標準化시켜 調査되고 作成된 資料가 아닌 한 위와같은 問題는 여전히 남게 되며 아틸만 教授式的 平均은 그 方法上 誤謬를 범하고 있다고 結論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IV. 高度成長・分配安定 結論에 대한 批判

아틸만 教授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韓國의 所得分配가 開發途上國들 가운데서 最上이며 1964年에서 1970年間에 同期間중의 高度成長에도 不拘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그대로 維持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의 主張은 앞서 본 資料上의 制約과 그의 分析方法上의 지나치게 강한 假定 내지 誤謬로 인하여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미 資料上

의 制約을 검토하면서 밝힌 것이지만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兩年度의 不平等度를 비교하면서 그 全體所得家口의 分布를 계산하는 過程에서 2集團의 즉 非農業自營業主와 財産所得者家口의 資料를 兩年度에 꼭 같은 것을 使用한 점, 둘째, 賃金 및 俸給者家口의 資料에 있어서는 資料上의 不一致(조사대상產業등)는 차치하고라도 1964年과 1970年을 비교하면서 資料의 制約上 1964年 대신 1967年 資料를 쓴 점, 셋째, 農家所得의 資料도 耕地規模別 統計에서 所得階層別統計로 다시 計算한 것이어서 6年間의 所得分配構造分析에 사용되기에는 敏感度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基礎 資料上의 重大한 制約과 앞서 본 分析方法上의 諸問題를 아울러 고찰할 때 兩年度間에 所得分配 상태가 高度成長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維持되었다는 그의 結論은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다.

V. 韓國所得分配 平等要因에 대한 批判

아델만教授는 그의 論文에서 韓國의 所得分配가 비슷한 所得水準 또는 그 以上の 水準의 國家들에 비하여 不平等度가 낮다고 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歷史的인 여러가지 事實과 事件으로서 說明하려고 試圖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는 農地改革, 6.25動亂, 教育機會의 擴大등을 들고 있으며 그 밖에도 平等 또는 不平等度 어느 方向에의 寄與라는 評價없이 政府의 強力한 經濟政策의 施行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지적은 그들 要因들이 韓國의 所得의 平等化에 이마지한 側面을 說明해 주는 것으로서는 意義가 크다고 할 수도 있겠다.⁽¹⁴⁾

그러나 그와같은 要因이 韓國의 所得分配의 平等化에 寄與하였다는 面을 分析하는 것은 意義가 크지만 더 나아가 이런 要因들로 인하여 韓國의 所得分配가 다른나라에 비하여 平等하게 分配되어 있다고 까지 하는 데에는 問題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韓日合邦以後 혹은 解放以後만 하더라도 그러한 平等化方向의 要因외에 不平等化方向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 각종 要因 또한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解放後 및 動亂期와 그 이후의 대단히 높았던 인플레이션, 1950年代의 外換 및 援助를 둘러싼 不平等의 配分政策, 低農產物價格政策, 1960年代以後의 外資導入, 累進稅制度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으로 偏重的인 財政金融政策, 獨寡占價格, 低賃金, 몇몇 特殊한 職域을 제외한 社會保障制度의 皆無狀態등등의 諸要因은

(14) 朱鶴中博士는 이러한 方向의 要因을 더욱 철저히 分析한 바 있다. 그의 論文 "Some Sources of Relative Equity in Korean Income Distribution: A Historical Respective", July 1975를 參照할것.

所得分配을 積極的 또는 消極的으로 不平等化의 方向으로 作用하였다고 해야할 것이다.⁽¹⁵⁾

따라서 아직은 所得分配의 平等化와 不平等化에 영향을 미친 모든 要因들이 綜合的으로 검토되어 그들의 影響의 純增減分에 대한 分析이 없으므로 어느 一方만을 強調하는 것은 誤謬를 범하고 誤導된 結論을 誘導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VI. 結 語

지금까지의 考察을 綜合해 볼 때 世界銀行·서섹스大學 報告書에 실린 아델만教授의 韓國所得分配 平等論과 1964年과 1970年間의 高度成長下의 分配構造安定의 結論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몇가지 制約과 誤謬가 있다고 結論지을 수 있다. 이 問題에 대하여는 結論的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韓國의 所得分配의 不平等度는 아직 그것을 計測할 資料가 없어서 알 수가 없으며 所得分配構造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 自體를 目的으로 하는 獨立的인 調査가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둘째, 아델만教授와는 달리 高度成長期間에 所得分配의 不平等度가 낮은 상태로 그대로 持續된 것이 아니라 실혹 韓國의 所得分配가 비슷한 所得水準의 諸外國에 비하여 不平等度가 낮다 하더라도 期間分析일 경우에는 V에서 列擧한 여러 要因을 勘案할 때 不平等度가 높아질 可能性이 커지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셋째, 韓國의 所得分配에 대하여 平等化의 方向으로 영향을 미친 여러 要因만을 集中的으로 強調하는 것은 자칫 韓國의 所得分配가 相對的으로 平等하다는 結論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될 危險이 크다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不平等度의 水準自體보다도(그 水準은 실제로 낮을지도 모른다) 不平等度의 어떤 期間에 걸친 變動을 論議할 때 더욱 結論을 誤導할 可能性이 큰 것이며 그와 같은 立場이나 態度를 警戒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附錄：韓國所得分配關係文獻

1. 國文 및 日本文獻

復興部, 産業開發委員會 資料, 1958

尹起重, 「韓國의 國民所得의 分析 1947-57」, 延世大學校 大學院, 1958

蔡汶奎, 「韓國의 所得分布」, 延世大學校 大學院, 1964

(15) 이들 諸要因에 대한 간단한 分析은 서울大學校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가 刊行 豫定인 『人口와 韓國의 未來：經濟編』에 收錄되는 拙稿, 「韓國所得分配構造의 變動」을 參照할 것.

- 中央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우리나라의 所得分布 및 消費構造에 관한 實態分析』, 1958
 韓國銀行, 『賃金基本調査報告』(1967), 1968
 韓國産業開發研究所, 『賃金實態基本調査報告』, 1970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가계 조사연보』, 1963—1975
 農水産部, 『농가경제 조사결과보고』, 1963—1975
 李賢宰, 「韓國의 經濟成長過程에 있어서의 國民所得構造 變動에 관한 研究」, 『經濟論集』第7卷 第1號(1968年 3月) pp. 1—156.
 崔虎鎭, 尹起重, 「韓國所得分布의 不均等度에 관한 研究」, 『經濟學研究』, 第23輯 (1975年 11月)
 金鍾仁, 李孝求, 「租稅의 所得再分配機能에 대한 限界性」, 『經濟學研究』, 第23輯 (1975年 11月)
 裴茂基, 「所得分配」, 邊衡尹, 金潤煥 編, 『韓國經濟論』第15章, 1977
 裴茂基, 「韓國所得分配構造의 變動」,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 『人口와 韓國의 未來: 經濟編』, 1977
 渡邊利夫, 「開發途上國의 經濟成長と所得分配」, 『季刊現代經濟』25, 1976 冬

2. 英文文獻

- Irma Adelman, "Redistribution with Growth: The Case of Korea", Mimeographed, December 1973.
 ———, and Cynthia Taft Morris, "An Anatomy of Income Distribution Patterns in Developing Nations.....A Summary of Findings",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Economic Staff Working Paper No. 116, September 1971.
 H. Chenery, Montek S. Ahluwalia, C.G.C. Bell, J. Duloy, R. Jolly, *Redistribution with Growth: An Approach to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Hakchung Choo, "Review of Income Distribution Studies, Data Availability, and Associated Problems for Korea, the Philippines and Taiwan", Paper presented at the Brookings-Princeton Conference, September, 1974.
 ———, "Some Sources of Relative Equity in Korean Income Distribu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sponsored jointly by the Japan Economic Research Center and the Council for Asian Manpower Studies, December 16—20, 1974, in *Income Distribution,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ast and East Asia*, vol. I, July, 1975.
 Young-Il Chung, "Over-Time Changes in the Regional and Urban-Rural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n Korean Income Distribution sponsored jointly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nd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Tokyo, Japan, May, 1976.
 Chae, Moon-Kyoo, "Income Size Distribution for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Working Group Seminar on Income Distribution, Manila, January, 1972.
 Cora K.W. Lighteringen, "Income Distribution among Farmhouseholds in the Republic of Korea", Mimeographed, May 1976.
 Robert E. Looney, *Income Distribution Policies and Economic Growth in Semiindustrialized Countries: A Comparative Study of Iran, Mexico, Brazil and South Korea*, New York, Praeger, 1975.
 Toshiyuki Mizoguchi, Do-Hyung Kim and Young-Il Chung, "Over-Time Changes of the Siz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in Korea (1963—1971)", Mimeographed, 1976.
 C. Morrison, "IBRD Consultant Report on Korea", August, 1973.

- Harry T. Oshima,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ostwar Experience of Asian Countries", *The Malayan Economic Review*, Vol. XV, No. 2 October 1970.
- Jae-Yoon Park, "Infl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n Korean Income Distribution sponsored jointly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nd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Tokyo, Japan. May, 1976.
- Felix Paukert, "Income Distribution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A Survey of Evidence", *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 108, Nos. 2-3, August-September 1973.
- Bertrand Renaud,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Paper prepared for the 1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January 1975.
(Revised Version July 1975).
- Shinichi Yoshioka, "A Study on Wage Distribution in Korea and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Seminar on Korean Income Distribution sponsored jointly by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nd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Hitotsubashi University Tokyo, Japan. May 1976.